## 감금 집단폭행·성폭행할 남학생 인터넷 모집

# 상상 초월 여고 폭력

### 광주 모여고 1학년생 등 12명 범행

같은 학교 친구를 집단폭행 감금하고, 인터넷으로 성폭행을 사주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광주 S여고 1년 김모(16)양 등 6명을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집단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17일 학교 친구인 A(16)양이 "우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며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내 상의를 벗기고 5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다.

김양 등은 또 18일 인터넷 N 채팅 사이트에 "여기 (성관계를 할) ××가 있다. 원하는 사람은 연락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양 등은 이어 당시 게시물을 보고 답신을 보내온 남학생의 아파트로 A양을 데리고 가 성폭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남구 백운동 모 아파트 지하실에 2박3일 동안 감금되는 등 17일부터 20일까지 김양 일행에게 끌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17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다 18일 새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김양 등은 A양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보고 전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20일 오전 A양을 풀어줬다.

피해자와 가해자 일행은 광주 I중학교 동창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성폭행과 감금 후유증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양 등은 A양을 폭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남학생과 접촉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 장소인) 남학생의 아파트에는 따라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부인했다.

한편 학교 측은 A양이 17~20일까지 3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단순 가출로 알고 있다가 21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교장·교감·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폭행에 가담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아줌마들 딴 수업 받아라"

### 비하 발언 대학원 교수 '물의'

#### 공개사과·조사 촉구

국립대 대학교수가 대학원 수업을 듣던 기혼 여성들을 '아줌마'로 호칭하는 등 인격 모독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생인 이모씨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현대문화예술이론' 강의를 듣던 중 M교수로부터 "아줌마들은 나이 많아 반말도 할 수 없고 수강생도 20명이나 돼 수업하기도 힘들다. 수업연장으로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아줌마라 그것도 안 되고…딴 수업 받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또 성명서에서 "전공필수 과목인데 어떻게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느냐는 항변에 M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수업을 듣고 점수 받아오면 자신의 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점수를 주겠다는 등 편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M교수의 공개사과와 편법 학점 취득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 측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당시 강의실에는 다른 기혼 여성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성명서를 낸 몇 사람만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어찌 됐건 아줌마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M교수는 또 "수업 후 연구실로 찾아온 이씨 등이 직장인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공부할 분량이 많아 학점이 나쁘게 나갈 가능성이 많으니 다른 과목을 수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원참 〈7084〉 김종두

## ■ 인터넷 매개 범죄 막을 수 없나

### 회원·이용자 수천만명…단속 한계

### 이미지·색깔별 분석 시스템 시급

인터넷을 매개로 성폭행을 사주하는 유형의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는 없을까? 최근 인터넷이 범죄 수단과 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예방과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회원 규모가 2천만 명이 넘는 '싸이월드'(www.cyworld.com)의 경우 '자살' '음란' 등 금칙어 600여 개를 설정, 이런 단어가 포함되면 검색이 불가능토록 했다. 또 200여 명의 요원이 동영상·미니 홈피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불법·음란성이 있는 블로그나 홈피, 게시글 등을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

회원 3천800만 명·670만 개의 온라인 카페가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은 금칙어 100여 개를 설정해놓고 150~200여 명이 24시간 근무한다. 회원 2천300만 명·블로그 이용자 700만 명인 '네이버'(www.naver.com)는 금칙어 120개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검색어 8천개를 설정해놓고 270명이 유해 게시물을 감시한다.

그렇지만 원천적 차단은 힘든 실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금칙어를 지정해도 특수 문자 등을 조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다, 회원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도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보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 '야후 코리아'(http : //kr.yahoo.com)의 음란물 게재 파문에 이어 '다음'과 '네이버'에도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 온'(http : //nateonweb.nate.com)의 경우 사적 공간이라는 점을들어 금칙어도, 모니터링도 전혀 없다. 광주 북부경찰에 붙잡힌 여고생들도 이 같은 점을 악용, 성폭행할 남학생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구했다. 걸러낼 수 없다면 해당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은 "유해물 동영상을 이미지와 색깔별로 분석,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도청 앞 反FTA 시위**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회) 소속 농민 회원 800여 명이 22일 오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사 정문 앞에서 박준영 도지사의 FTA 반대 의사 표명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농민 1천500여 명은 앞서 목포 평화광장에서 'FTA 반대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목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고혈압 40대 병원 앞 변사

### 의사 궐기대회로 후송 늦어

고혈압을 앓던 40대 남성이 병원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병원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H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오모(47)씨가 처방약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응급조치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심폐소생 장비가 없다"며 근처 대학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의료인 궐기대회가 열렸던 이날 H병원은 정상진료를 하고 있었지만, 구급차 운전사가 서울 집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후송이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5분간 방치됐다가 지나가던 김모(25)씨가 119에 신고, D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H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이 우리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라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서운 20대 엄마

### 13개월 아들 폭행 치사

영광경찰은 22일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폭행, 숨지게 한 김모씨(여·27·영광군 영광읍)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보챈다"는 이유로 외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의 아들은 당시 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두개골 파열상을 입었으나, 김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아이를 8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중국산 냉장 재첩

### 국내산 속여 팔아

여수해경은 22일 중국에서 냉장 수입한 재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판매한 김모(52)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중국산 재첩 300㎏을 해남산이라고 속여 섬진강변 식당에 판매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국산보다 4~5배 가격이 싼 중국산 재첩 9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광주 또 편의점 강도

2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F편의점에 30대 남성이 들어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수도권 10대들 완도에 원정 절도

쌍나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고교를 중퇴한 10대들이 여행객을 가장해 완도까지 원정 절도를 나왔다가 경찰에 덜미.

○…완도경찰은 22일 지난 18일 밤 10시30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K장식 앞 길에 세워져 있는 김모(27)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최모(18·서울시 상계동)군 등 5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5㎞가량을 달아나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자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이튿날 새벽 모두 검거됐다고.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